

財團巡禮



理事長·李活씨



事務總長 高範俊씨

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의 고도화된 경제 성장은 산업과 대학의 連繫에 의한 技術革新과 高級技術人力을 긴급히 요청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화 발전 과정에 있는 나라는 산업계의 자립적인 기술혁신면에서나 인력개발 면에서 産學協同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근간에 번지기 시작한 産學協同運動은 어느 한정된 사회 일각의 주도에만 의존하는 단계를 벗어나 官·産·學이 함께 공동참여 내지 공동주도하는 産學協同體制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따라 民間團體에 의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産學協同機關인 産學協同財團을 찾아 동재단이 지난 5년간 수행한 사업실적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産學協同의 現況을 알아보기로 한다.

創立5年만에 基金百億增額... 國際間的協同事業도 多大

國內最大の 獎學財團으로 成長

産學協同財團의 事業実績과 計劃

## ◎ 産學協同의 意義

産學協同의 개념은 대체로 狹意와 廣意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廣意로 해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産學協同은 大學을 중심으로한 業界와 産業界가 教育과 研究의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보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업 기술의 향상을 꾀하고 나아가서는 국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學界와 産業界 사이의 協力活動을 일컫는다.

산학협동의 내용은 그 범위가 무척 넓고 협력 관계가 다기다양하나 크게, ① 연구와 기술개발. ② 교육과 인력개발. ③ 자금과 시설면에서의 협력을 들 수 있다.

원래 산학협동은 대학측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시작한 것이지만 実効를 거두기 위해서는, Counterpart 인 産業界의 적극적인 호응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기업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서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国内企業은 아직 産學協同에 대한 올바른 理解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자세 또한 소극적이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산학협동 사업은 이제 겨우 걸음마를 익히는 유아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업도 점차 기술 개발의 자립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기술 개발은 기업체의 연구진들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에 따라 대학의 두뇌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know how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임직원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보내 훈련 과정을 이수케한다든가 하여 상호 협동 체제에 의한 발전 과정을 꾀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해서 싹트기 시작한 한국의 산학협동 운동은 기업주들의 새로운 인식과 함께 1974년 산학협동 운동의 매개체로 産學協同財團이라는 열매를 맺기에 이르렀다.

## ◎ 国内最大の 學術財團으로 成長

財團法人 産學協同財團은 韓國貿易協會를 주축으로한 국내 무역인들이 學界와의 協力을 통한 企業의 社会的 責任을 자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써 자신들이 基金30억원을 出損하여 설립한 것.

재단은 설립당시부터 官·産·學 및 근로자간의 유대강화로서 학계의 연구와 교육과 지역 사회개발에 관련되는 산학협동 사업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해 왔다.

재단은 설립이후 무역업계의 폭넓은 이해와 지원으로 설립당시 30억원이던 기금이 5년이 흐르는 동안 100억원으로 증액되었고 그동안 34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술 연구비를 지원했으며 기타 산학협동 관련 사업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国内最初 最大の 산학협동매개체로서 위치를 확고히 해 나가고 있다.

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산학협동사업은 크게 학술연구지원사업, 장학사업 및 기타 산학협동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다시 (1) 학술연구 및 개발연구 지원. (2) 장학사업 및 연수활동 지원. (3) 학회 및 연구단체지원. (4) 학술대회 강좌등의 개최 또는 참가지원. (5) 전각항의 국제교류활동 지원. (6) 기타 산학협동 활동 지원 사업으로 세분된다.

## ◎ 學術研究에 年 3億원 支援

먼저 학술연구 지원 사업은 自然科学 및 人文 社會분야의 專任講師 이상의 대학교원들에게 연구 수행을 돕기위해 年평균 3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다.

재단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대학교수와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대학교수의 연구 의욕이 진작되고 대학의 연구 성과가 기업체에 의해 적극 활용될 수 있

는 산학협동 촉진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효과적인 사업이므로 동재단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이다. 설립이후 지난 5년간 1,775명에 대해 1,083개 연구과제에 13억4,248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했으며 이가운데 자연과학계에 대한 연구지원비가 9억 2천988만원에 달하고 있다.

◎ 奨學事業도 国内最大規模

高度産業社會의 요구에 대응할 技術人力과 高級頭腦의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인 장학 사업은 주로 근로자의 자녀들 가운데서 實業系高校 이상의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설립당시 전국의 각종 장학재단을 통해 지급된 장학금 총액수는 3억원을 약간 상회하는 형편이었으며 1인당 수혜 규모에 있어서도 대학생의 경우 평균 8만원선을 넘지 못했으나 동재단이 창설되면서 년평균 2억원의 장학금으로 연간 각대학생에게 2십만원, 실업전문대생 1십만원, 실업고교생에게는 5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전국 민간장학 단체의 총지급 규모의 5/2를 차지하게 되었다.

재단이 지난 5년간 지급한 장학금은 2,486개 학교 학생 8,352명에게 10억 4백64만원 지급했는데 올해는 1,416명의 학생에게 3억 6,52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 기타 산학협동사업 選別支援

이밖에도 산학협동사업으로 산업계와 학계가 협동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選別的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학회 및 연구단체지원, 학술대회 강좌등의 개최 또는 참가지원 국제교류활동지원 기타 산학협동활동지원 등이 그것이다.

재단은 이 사업을 위해 총 5억207만원을 지

원했는데 이중 학회지발간 지원비로 9,820만원, 학술행사 개최 지원비로 1억415만 4천원 그밖에 산학협동 관련사업에 2억9971만 5천원을 지원했다.

◎ 效果 큰 國際間的 協同事業

이 재단에서는 또 국내 산학협동지원 사업과 병행해서 國際間的 산학협동 사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범위에서 자금지원을 해왔다. 1975년 美國 하버드大學校의 韓國學관계 강좌 개설 기금으로 100만불을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美國 Human Relation's Area Files의 韓國人文 관계자료목록 보완작업을 위한 기금으로 1만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또한 美 워싱턴소재 韓國問題研究所의 學術誌인 Journal of Korea Affairs발간과 美國내 韓國學연구 발전을 위한 기금 10만달러를 지원했으며 이밖에도 美國 하와이 소재 東西文化 센터에 中堅言論人 派遣研修사업, 美國人文系學術團體聯合會 (ACLS)에 美國學 전공을 위한 한국 학자의 渡美지원 사업을 수행한 바 있는데 그동안 지급한 국제 활동 지원비만도 30건에 3억2379만 5천원에 달한다. 특히 77년부터는 對外支援事業이 본격화 되면서 77~78년 2년간 지원한 금액이 총 3억2,380만원으로 지난 5년간 총사업비의 9.6%를 점하고 있다.

◎ 成果 많은 技術者 研修事業

이밖에도 재단은 韓國産學協同研修院支援, 産學協同見學團 派遣, 「産學協同」誌 및 研究要約書 發刊, 産學協同論叢의 현상모집, 산학협동 세미나 개최등 기타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재단은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산업계의 中堅技術者 및 管理層의 再教育을 위해 시도된 산학협동 연수사업을 지원키로하고 中央大내에 설치된 韓國産學協同研修院(원장 韓煥煥 박사)을 75년부터 78년까지 매년 지원해 왔다.

동연수원은 그동안 工場長經營課程, 國際經營管理課程, 建設輸出管理課程의 3개 연수과정을 개발하여 실험적으로 1회씩 운영하였고 연수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78년 제 4차년도까지 4개 과정에 대한 29회의 연수회를 개최, 총 588개 업체로부터 1,147명의 고급기술 및 관리인력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한 바 점차 각계의 호응과 대외적인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금년 1월 6일자로 國際經營大學院으로 확대 개편된 바 있다.

재단은 또한 동재단의 장학생과 소속 대학 인솔교수로 구성되는 産學協同學會를 주축하여 매학기 1회씩 3~4일간 전국에 산재한 주요 수출품 생산품공장과 기업체 및 관련기관을 순방하는 산학협동사업을 지원, 지난 5년간 9차에 걸쳐 총 67개 대학 291명의 대학생과 38명의 인솔교수에게 주요수출품 생산업체 90개사를 방문, 시찰토록 지원했다.

동재단은 특히 전국 4년제대학교 또는 대학의 교수를 대상으로하는 産學協同賞을 제정하여 기업체, 학계, 근로자간의 산학협동체제조성에 공적이 현저한 대학 또는 대학교수에게 산학협동단체상 및 개인상을 수여하여 산학협동체제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활동에 대한 의욕이 계획에 비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회나 연구단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술지의 발간과 개최하는 세미나, 심포지움등의 학술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고 있다.

### ◎ 창립 5주년기념 「産學協同論叢」 발간

이렇듯 우리나라 산학협동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의 일익을 담당해 온 산학재단은 금년 3월 30일로 창립 5주년을 맞아 재단의 사업실적을 위주로한 중요내용과 그밖의 자료들을 정리하여 「産學協同財團 5年史」를 발간하는 한편 그동안 국내의 官·産·學界間에서 검토되어왔던 이 분야의 여러가지 이론적인 견해와 실천적인

경험에 관한 論說, 評論, 調查報告, 기타 관련 참고자료등을 한데 묶어 「産學協同論叢」을 펴냈다.

### ◎ 高事務總長 · 協同促進方案 提示

산학협동재단 高範俊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산학협동의 효율적인 촉진방안을 다음 여섯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먼저 産과 學의 공동대화의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산학협동의 촉진을 위한 모든 문제의 제기는 大學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져야하며 산학협동을 위한 産·學間의 협의를 실질적으로 가능 또는 쉽게하기위한 수단으로서 대학내에(특히 經商系大學과 工科大學의 협동으로) 기업을 상대로하는 綜合的 技術經營相談機關을 부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교수의 연구비 또는 학생들의 장학금, 기타학회의 학회활동상 소요한 재정적지원의 요청은 이를 직접적으로 특정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것보다는 각종 재단, 기타공익법인을 통해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學際間(interdisciplinary) 또는 대학 상호간의 공동노력에 의한 여러가지 산학협동의 촉진은 정부, 재단 기타공익법인등에 의해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高총장은 우리나라 산학협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전국적·계통적, 주기적으로 기획 및 조사되고 또 그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高사무총장은 「80년대 고도산업 부지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대학에 있어서의 고도의 知識技術의 습득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급속히 요청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활동이 병행 또는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이에 소요되고 자금과 시설과 인력의 모든면에 있어서 대학과 기업의 협력관계가 종전보다도 더욱 긴밀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仁)